

*Split Subjects and
the Unconscious*

분열된 주체와 무의식

김혜영

박청룡 시인과 안창홍 화가가 교차되는 시선

1. 늙지 않는 봄날, 소년의 눈빛



안창홍, 〈봄날은 간다〉, 2007년

해운대 공간화랑에서 박청룡 시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부산

이란 도시에 같이 살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의 특이한 시를 가끔 문학잡지에서 읽기는 했지만 왠지 낯선 느낌이다. 학교를 은퇴하신 시인일 거라고 상상했다. 그런데 공간화랑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그의 시적 열정에 깜짝 놀랐다. 시에 집중하는 에너지와 시적 긴장을 유지하려는 진지한 자세에 존경심이 일었다. 고등학교 때 시를 써서 상을 받았는데, 받은 상품이 김종길 시인이 번역한 ‘영미 시인선’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시의 전형으로 삼은 것은 영미시였고, 그의 시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년처럼 말하는 반짝이는 눈빛! 세월이라는 허무한 그늘도 사라지는 듯하다. 봄날은 간다지만 시인의 영혼에 깃든 시혼은 늙지 않는다. 안창홍의 그림처럼 노란 나비가 빛바랜 시간의 장막을 하룻하룻 날아다닌다.

최근에 읽은 그의 시에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다. 특히 「주피터 21」, 「등댓불」, 「북항, 제8부두」에서는 부산 바닷가에 즐비한 고층 건물과 항구의 풍경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새로운 첨단 미래도시처럼 탈바꿈한 마린시티의 고층 건물을 시로 형상화한 「주피터 21」에서는 기계 문명의 틈바구니에서 왜소화되는 인간 군상을 유머러스하게 담고 있다. 거대한 고층 건물이 마치 제우스 신처럼 인간을 통치하는 듯한 상상을 전개시킨다. 전지전능한 신처럼 우뚝 솟은 채 그 속에서 개미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날낫이 읽고 있는 빌딩이 주체이다. 현대인의 비만한 욕망을 닮은 듯 그칠 줄 모르는 물욕과 탐욕으로 성인병을 얻은 빌딩에 대한 의인화가 재미있게 읽혀진다. 가장 높이 올라

가고 싶고,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자본의 욕망이 빌딩에 투사되어 있다. 사람과 건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점이다.

눈 그치고 바람 불면서 다시 흑한이 찾아왔다.
80 수층을 헤아리는 지상 300m 상공에서도
시고 144km의 강풍과
리히터 규모 7.0 강진에도 견뎌낼
SHM '횡력저항 구조시스템'을 내장한
지하 5층 동광 주피터 21, 그의 발은
열흘 넘게 이어진 영하 20여 도의 강추위,
얼어터진 동상으로 진물이 흐르고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스트레스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식탐을 유발,
꾸역꾸역 멈출 수 없는 폭식으로
복부비만을 시작으로 갖가지 성인병과
끝내는 면역저하란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게 하는
거명게 죽은 피, 긴 지령이 어혈을 뽑아낸
부항자국, 그는 만신창이다.

— 「주피터 21」 부분

현대 시인들은 왜 자본과 기계 문명의 발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걸까? 문득 의심이 든다. 80층짜리 고층 건물은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다. '아이파크', '제니스'라는 첨단 건물들은 날렵하고 매끈한 여인의 다리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있다. 벽면을 유리로 마감하여 푸르스름한 유리 옷을 입고 선 여신들처럼 느껴진다. 같은 사물에 대해 현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기보다는 그 건물이 지

어지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자본의 탐욕에 대해 박청룡 시인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0년에 출간한 『카인의 부적』의 서문에서 “등단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추구해온 내 시의 본령은 인간이 지난 악에 대한 본질 추구였다”¹⁾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 근원은 아마도 그의 종교인 기독교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십 년 넘게 교회에 나가지 않다가 최근 신앙에 깊이 몰두하면서 죄인으로서의 자화상을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점점 물질주의로 빠져가는 현대 문명의 야만성을 그의 시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려 한다. 그가 탐욕적인 인간의 욕망을 들추어내는 시적 전략을 선택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영원불멸한 정신을 향한 열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면적이고 감각적인 현대 문명보다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북항, 제8부두」 시편에서도 부산의 바다 풍경을 비릿하고 썩어가는 채취로 묘사하고 있다. 물류 창고에 쌓인 코카콜라와 커피 병들이 이리저리 마구 뒹굴고, 썩은 액체를 마시려 날아든 유충들만 왕성하게 번성한다. 내항을 가득 메운 애벌레 유충들은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세관당국이 기름을 부어 소각하기까지 한다. 생명의 바다로 나아가는 싱싱한 부두의 이미지가 아닌 부패되고 죽어가는 바다의 이미지가 압도적이다.

1) 박청룡, 『카인의 부적』, 도서출판 전망, 2010, 5쪽.

드디어 당국은 기름을 부어 소각하기로 한다.
유충은 불길을 피해 수심 깊이 폐수를 따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바다만 까맣게 그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
드디어 도시를 점령한 날벌레들은 다시 바다로 선회한다.
까맣게 변한 항만, 쓰레기 물 위로 모여 앉는다.
교접을 마친 수컷들은 스스로 쓰러진다.
산란 직전의 부풀대로 부푼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암컷들은 침몰
한다.
밤사이 겨우 제 빛을 찾은 항만,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부두 가득 찌그러진 깡통만이 쌓여 있다.

—「북항, 제8부두」부분

부산의 풍경은 바다로 대표되는데, 박청룡 시인의 인식 속에서 바다는 오염과 부패에 신음하는 불모의 풍경이다. 「등댓불」에서도 해초와 산호까지 하얗게 말라버리고 녹색 적조에 물드는 병든 바다이다. 거대한 빌딩과 무한한 바다 역시 병들고 비만한 욕망에 짓눌려 있다. 자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자연의 고통스런 통증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개발과 착취의 수단에서 탈피하여 바다 본연의 생명력을 되찾아주고픈 시인의 열망이 투사된 시편들이다. 싱싱한 피가 도는 푸른 바다와 인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문명의 도시를 유토피아처럼 꿈꾸는 그의 이상이 역설적으로 담겨 있다.

2. 불편한 진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안창홍, 〈기념비를 위한 에스키스〉, 1990년

박청룡 시인은 공간화랑의 대표인 신옥진 화상과의 인연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예술세계와 비슷한 길을 추구하는 화가인 안창홍의 그림 이야기를 전개한다. 신옥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화상이며, 2009년 『심상』으로 늦은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수십 년 모은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무상으로 부산시립 미술관에 기증한 사건 때문이다. 공간화랑에 전시되었던 안창홍의 ‘맨드라미’ 그림이 기억을 스쳐지나간다. 박청룡은 신옥진과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놓는다. 자신이 럭비 경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미국의 살인 수사 드라마의 매니아임도 전해준다. 그가 쓴 「황금전갈」의 부제인 “C.S.I 殺人日記”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되는 순간이다. 인간의 잔혹한 살인 욕망에 대한 심원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시편이다.

이백여 개가 넘는 뼈를 재조립했다.
 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돌로 마구 찍힌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저지른
 그것도 분노, 보복이란 심리적 요인이 잠재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은화 몇 푼에 매수된
 우매한 군중의 분노를 가장한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청부살인이었다.
 치명적 사인은
 갈비뼈 몇 대를 짓이긴 무딘 창으로 마구 난자한
 옆구리의 상처였다.
 2천년이 지난 오늘 아침에도
 폭약을 짊어진 어린 자객들이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다.

— 「황금전갈-C.S.I 殺人日記」²⁾ 부분

한 개인의 폭력이 얼핏 사적인 복수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정치적 음모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자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한 것 같지만, 얼마나 그 간극이 좁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천 년 전 성난 유대 군중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예수 역시 기득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희생된 것임을 상기시킨다. 그 젊은 예수의 뒤를 잇듯 죽음의 불꽃으로 뛰어드는 아랍의 순진무구한 청년들의 폭력을 교차시킨다. 정의를 위해 자행되는 폭력의 신

2) 박청룡, 『황금전갈』, 현대시, 2006, 34쪽.

성함이 가지는 그로테스크한 힘을 폭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카론 세큐토론」에서 로마 검투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로마 시대에 성행했던 검투사들의 결투에서 부상당한 검투사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쇠망치를 휘둘렀던 잔혹한 죽음의 신 ‘카론 세큐토론’을 그의 시 속으로 호명한다.

백야,
빛을 자르고
소리와 그림자
피마저 자른
검투사들의 장검난무(長劍亂舞)
승자도 패자도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패자들의 격투,
피 위에 피가 다시 엉키는
온통 상처투성이
혈투에 도취된 사람들은
빛을 잃어가는
콜로세움,

—「카론 세큐테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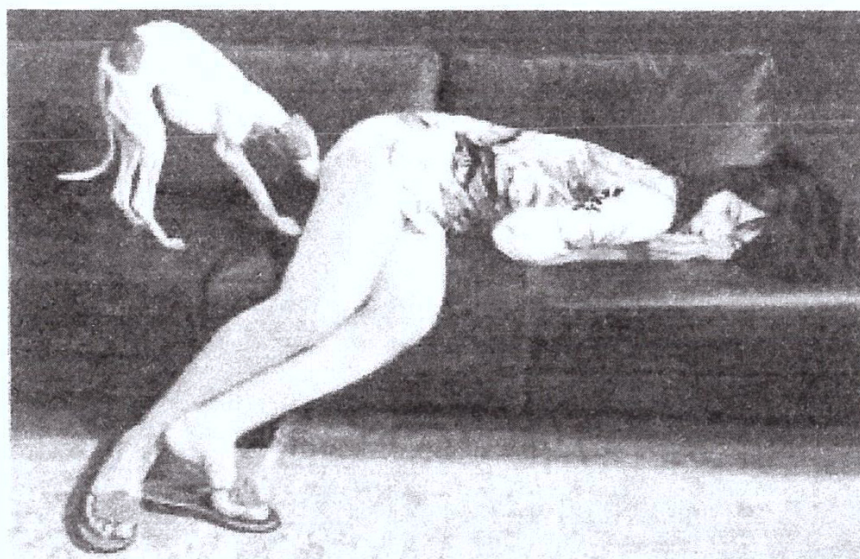
눈도 코도 없는 철가면을 쓴 채 죽음의 신처럼 쇠망치로 두개골을 쳐부수는 카론 세큐테론은 어쩌면 끊임없이 ‘법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은유일 것이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힘 없는 소수가 감히 항거할 의지조차 상실하게 만들

어버린다.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폭력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워 아주 잔혹하게 행사되기도 한다. 박청룡은 거대 권력의 폭력과 함께 현대인의 개인 내면에서 작동되는 욕망과 폭력의 얼룩들을 채집하듯이 사실적으로 폭로시킨다.

현대인의 욕망과 폭력적 성향을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묘사하는 안창홍의 그림은 파격적이다. 상품이 되어 팔리기 좋은 아름다운 그림보다는 세상을 통찰하는 날카로운 시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화가이다. 박청룡이 안창홍의 그림 제목들을 엮어서 완성한 시가 「푸른 빛 면류관은 잠들지 못한다—안창홍, 기념비를 위한 에스키스」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화가이면서도 학력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으로 그가 개척한 한국인의 초상화는 섬뜩하고 이질적이고 때로는 불편하다. 그래도 그가 대중들의 기억에 훌륭한 화가로 각인되는 까닭은 솔직하게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 때문일 것이다. 박청룡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악마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화가가 안창홍 시인이라고 말한다. 그가 부제로 쓴 ‘기념비를 위한 에스키스’라는 그림은 인간의 성적 욕망을 조각상처럼 그려낸 작품이다. 그 적나라함에 언뜻 섬뜩하지만 예술가로서의 강한 집념이 느껴진다.

무례한 복돌이의 그날의 기억,
위험한 놀이
—살인의 추억을 떠올리면
언 흙이 녹아 부석부석 떨어진
벽에 걸린 가족사진과 더불어

명상에 잠긴 49인이 스쳐가고
 부석부석 부어오른
 부서진 얼굴들.
 고비사막 여기저기 흩어진
 뼈만 남은 짐승들의 박제.
 소(牛)품에 안긴
 벌거벗은 화가 창홍, 안(眼)이 보인다.
 사람들은 둘러서서
 못 본 척 겹눈질들이지만
 혈떡혈떡 신나는 순돌이의 바캉스
 혈레(婚禮)는 진행 중이다.
 종일 지겹도록 겹돌고 있는
 -봄 날 은 간 다 <LP판>
 양귀비 언덕 위엔 곤충채집 해골채집
 채집, 채집, 채집 분주하다.
 안구척출범(眼球剔出犯)을 찾아라.
 앞 못 보는 구천(九天)을 떠도는
 사자(死者)를 위한 미사(彌撒)도 준비하게.
 화가의 심장을 둘러싼
 찢레가시 하나하나에 번지는 피.
 아직 그대 잠들지 못 한
 꿈 빛 붉은 거인의 잠이여.
 푸른 빛 면류관을 꿈꾸는가.
 평생 싸갈긴 쌓이고 쌓인
 화가의 똥-꼭지에 앉아 뭘 보는가.
 코를 찌르는 달갑잖은 향기,
 높은 정상, 보이는 것이라곤
 빈 하늘뿐



안창홍, 〈무례한 복돌이〉, 2010년

그대 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 안창홍의 작품명

—「푸른 빛 면류관은 잠들지 못한다—안창홍, 기념비를 위한
에스키스」 전문

안창홍은 박수근처럼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부산의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자신만의 독창적인 미적 세계를 혼자 구축해 온 화가이다. 제도권의 아카데미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어찌면 그의 미술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었나 싶다. 도덕적 금기나 체면 같은 관습의 틀을 여지없이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그의 작품이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솔직함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안창홍의 세계를 개관하는 박청룡 시인은 화가의 이력이 담긴 두툽한 도록을 넘기듯 그의 미술에 대한 비평을 시적으로 조각하고 있다. 소

파에 이상한 포즈로 누워 있는
여자의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대
는 개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도 하고 역겹기도 하다. 그런
데 날카롭게 긴장된 눈으로 화
가를 응시하는 모델의 표정이
낮설다. 화가를 응시하는 동시
에 그림을 보는 관객을 응시한
다. 동시에 박청룡은 그의 시
를 읽는 독자를 응시한다.



안창홍, 〈화가의 똥〉, 1999년

황금전갈의 가면, 혹은 카론
세큐토론의 철가면처럼 수많

은 가면에 둘러싸인 한국인의 복잡하고 무거운 심리를 박청룡은 그
의 시의 주된 모티프로 삼고 있다. 교양과 체면의 무게에 짓눌린 지
식인의 고뇌와 말랑말랑하고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에 함몰된 시에게
자신의 긴장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안창홍의 〈화가의 똥〉은
기발한 예술가의 초상화이다. 높은 탑 정상에서 벌거벗은 채 휴지뭉
치를 마치 칼처럼 들고 황금빛 똥을 싸고 있다. 돈의 권력에 휘둘리
는 미술 시장에 대한 경고처럼 들린다. 화가의 창작정신보다는 돈의
가치에 매몰되는 예술은 똥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랄한 풍자이다. 모
든 것의 척도가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현대의 통속성과 잔인성을 전
복하는 도발적 발상이다. 박청룡 시인이 안창홍에게 매혹되는 이유
도 그가 지향하는 시적 세계의 종착점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은

폐하고 미화시키기는 가면들의 세계를 확 벗겨내고 맨살 같은 신랄한 언어의 칼을 휘두르고 싶은 검투사가 그의 자화상이다. 화가의 똥은 황금색이지만 시인의 똥은 아마도 검은 똥일 것이다. 하얀 종이에 써 내려간 글자들이 미처 소화되지 못해서 쌓여가는 검은 똥, 그것이 어쩌면 현대 시인의 초상화인지 모른다.